



The 40<sup>th</sup> Anniversary Bulletin of Korean Diabetes Association

# 40주년 기념신문

발행처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사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르네상스타워빌딩 10층 1010호 우:121-706  
TEL. 02) 714-1968 / FAX. 02) 714-9084 발행인 : 최동섭 편집인 : 유형준

창립기념호

2008년 10월

www.diabetes.or.kr



●●● 40주년 기념인터뷰 ⑧ 7~8대 회장 민현기 교수

## 당뇨병학회의 큰 도약 한일당뇨병심포지엄 개최

"40주년 기념 원로교수 인터뷰"는 학회 역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원로회원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그 마지막 인물은 1979~1983년 제7~8대 회장직을 역임한 민현기 교수이다. 민현기 교수는 서울의대를 1994년 정년퇴임한 후, 현재 이운경 내과에서 당뇨병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인터뷰는 4월 30일(수) 오후 2시 당뇨병학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진행은 최동섭 이사장과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편집자>

민현기 교수 고회 기념으로 민현기 교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만든 수상록(隨想錄)을 보면, 민현기 교수는 항상 제자들에게 "학문에는 끈기가 있어야 하네"라는 말을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한 평생을 당뇨병 연구와 진료, 학회 활동에 바쳐온 그의 인생에서 우리는 그 '끈기'를 먹먹한 감동으로 느낄 수 있다. <2면으로 이어짐>



40주년 신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Contents

\*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신문은 2008년 3월부터 매월 발간되었으며, 여덟번째 신문인 창립기념호를 마지막으로 종간한다.

01 02

7~8대 회장  
민현기 교수  
인터뷰



03

40주년 기념사업단  
경/과/보/고

역사의 현장  
당뇨병학연구재단  
창립



04 05

40주년 기념 방담회  
이사장제 시기의 당뇨병학회



08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기념우표 기부금 명단 총정리

06 07

대한  
당뇨병학회  
40년사

당뇨병 있는 세상 만들기 그 출발점은 여기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소개

40주년 기념사업단  
활동 후기



# 당뇨병학회의 큰 도약 한일당뇨병심포지엄 개최

〈1면에서 이어짐〉

**민헌기**(이하 민) : 김응진 선생님께서 당뇨병학회를 세운 이래 40년이 라는 긴 세월 동안 기적적인 발전을 해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벌이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진 학회로 발전한 것이 무척이나 감개무량합니다.

**최동섭**(이하 최) : 선생님께서는 학회 초창기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학회를 창립한 1968년부터 1976년까지 8년간이나 부회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민** : 그때는 국력도 학회의 사정도 형편없어 고전했지요. 의사들조차도 당뇨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년에 한두 번 학술대회를 열었는데 청중들도 모이지 않았고 주최자로서 연재 만들기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야 학회가 조금 발전했지요.



〈좌로부터 최동섭 이사장, 민헌기 교수,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

**최** : 1979~1983년 제7~8대 회장직을 역임하실 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 : 아시다시피 제가 1970년부터 박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하고 대만까지만 나갈 수 있지 더 바깥으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1979년에 박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는 후 그 해 12월에 제가 당뇨병 학회 회장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졌지요.

그 무렵 일본과 함께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해보자는 제안이 나와 김응진 선생님께서 저더러 일본 나고야의 사카모토 교수를 찾아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 1981년 서울에서 제1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국제학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무사히 치러냈지요.

대회 준비 차 일본에 갔을 때 사카모토 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소개시켜주었는데 그들이 한국을 멸시하는 분위기여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시작했어요. 1983년 일본에서 제2차 한일당뇨병심포지엄을 할 때도 사카모토 교수가 많이 애써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당뇨병학자를 대거 불렀고 우리에게도 육중한 대접을 해주었죠. 우리나라가 세계 당뇨병학계에 명함을 내민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 선생님께서 회장을 역임하실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1982년 제11차 IDF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 : 10년 가량 해외 멀리를 못 나갔다가 그때가 처음 다시 간 거였어요. 동남아 루트를 타고 케냐로 갔는데 가다가 몬순 기후, 비행기 연착 등으로 혼이 났어요. 아마도 나이로비에서 IDF를 열었던 것은 아프리카에도 당뇨병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케냐가 자력으로 대회를 열 수 없어서 엘버티 교수가 직접 진두지휘를 했죠.

각 나라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명패가 'People's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최** : 1993년도에 IDF-WPR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IDF-WPR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민** : 제가 IDF-WPR 회장을 맡으면서 한국에서 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학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썼구요, 동남아 지역의 학자들을 많이 불러 훌륭한 대접도 하였습니다.

**최** :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민** : 당뇨병에 대한 진료는 다른 분야와 달라서 평생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당뇨병 진단을 받더라도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 하라는 말이 잘 먹히지 않아요. 환자가 스스로 식사요법 등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힘든 일이지요.

학회에서 교육자 훈련을 시키는 등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와 Co-medical part가 획적 유대를 잘 이루어 환자 교육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문제를 동시하면 안됩니다.

**최** : 명심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들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 :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이 뒤따른다면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아무리 시간을 바치더라도 교육자의 수입과 아무 관련이 없으니 일이 진행이 잘 안될 밖에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당뇨병 치료에 일보전진이 있을 것입니다.

**최** :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등과 협조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당뇨병학 한길로 걸어오실 수 있었던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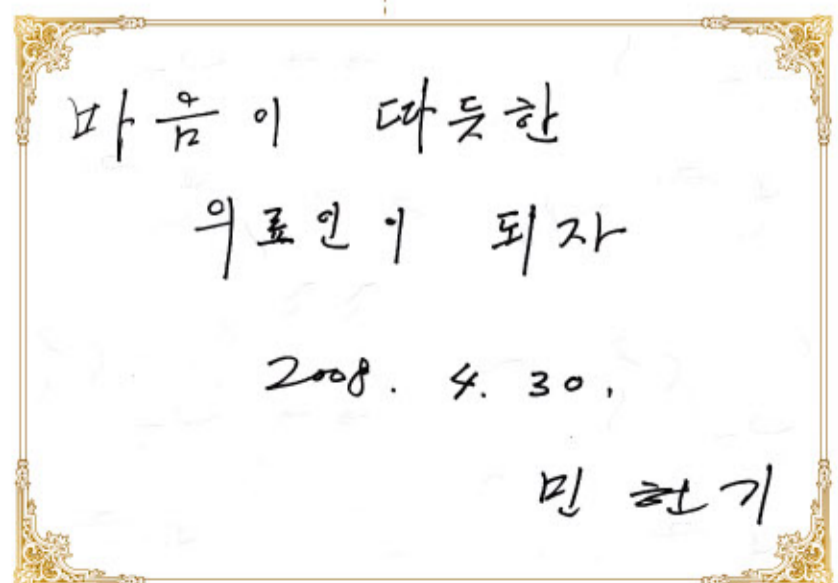
**민** : 지금이야 여든이 넘어 연구를 못하지만 환자는 아직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료지식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니 마음 든든할 뿐입니다.

**최** : 마지막으로 40주년을 맞아 학회와 후학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민** : 개인이나 병원이나 돈만을 제일로 생각하는 풍조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의학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진료가 되어야겠습니다.

민헌기 교수는 "학문의 즐거움과 그 실천은 끝이 없다"며 할 수 있는 날까지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한다. 감히 '여든 살 청춘'이라 말하고 싶다.

민헌기 7~8대 회장의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 휘호



## 40주년 기념사업단 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은 2007년 11월 9일 1차 회의를 시작한 이래 2008년 9월 18일까지 총 12번의 회의와 2008년 1월 29일, 3월 24일, 10월 1일 세 차례의 「40년사」 회의를 하였다. 이 외에 2008년 1월 18일 원로회원 초청 40주년 기념사업단 사업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다.

## 40년사 교정 및 인쇄

「40년사」 본문 원고 집필 및 사진 배치 작업이 9월 12일(금) 마무리 되었다. 4차례의 교정 작업과 표지 디자인 검토를 거쳐 10월말 「40년사」가 발행될 예정이다. 「40년사」 출판기념식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거행될 계획이다.

## 기념동영상 상영 및 우표 판매

제34차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학회 부스에서는 '40주년 기념 원로회원 인터뷰' 동영상이 연속 상영되며, 40주년 기념우표 역시 학회 부스에서 판매한다.

## 40주년 기념만찬 기념와인 제공

10월 31일(금) 오후 6시부터 있을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식 및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출판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기념만찬에 40주년 기념 복분자와인이 테이블에 세팅될 계획이다. 와인병에는 4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이 조각되어 있다.



역사의 현장 - 당뇨병학연구재단 창립 (2006년 9월)

# 학술 · 교육 · 연구 활동 지원으로 학회 위상 강화



〈2005년 8월 23일 학회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 공청회가 열렸다〉

당뇨병학연구재단의 설립 논의는 2004년 취임한 이현철 이사장의 가장 큰 공약사업의 하나로 학회의 법인화가 채택되면서 시작됐다. 취임 후 곧바로 재단설립추진 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현철 교수는 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매진하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정부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수 차례 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설립 배경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연구재단 설립을 인가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관우 약제 및 보험법제이사 와 남문석 재무이사가 앞장서서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받는 등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2005년 2월 22일 열린 평의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21일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창립총회가 열렸다.

14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대한당뇨병학회 이현철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당뇨병학연구재단 창립총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이어서 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손호영 학회 차기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이 잉태되었다.

발기인들은 창립취지문을 통해 "의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21세기 한국의 당뇨병 분야에 전국의 대한당뇨병학회 회원들이 모여 당뇨병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을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2006년 8월 21일 최종적으로 복지부로부터 연구재단 설립 허가를 취득하게 됐으며, 마침내 2006년 9월 12일 재단등기가 이루어졌다. 연구재단의 창립일은 이 날짜로 정해졌다.

연구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당뇨병 학술대회 지원 사업, 당뇨병 관련자 교육 사업, 대국민사업(당뇨병주간 행사, 2030 캠프 지원), 당뇨병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 사업, 국내외 단기연수 및 국제 학술회의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당뇨병 연구비 지원자는 매년 3월과 10월 전국 내과학 종사자 중 당뇨병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회의 지원자는 당뇨병학 전문의를 국제학술대회에 참가시켜 첨단학문을 도입,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2월 말에 선정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이 같은 사업들이 당뇨병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당뇨병을 교육하는 교육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시켜 당뇨병환자의 교육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당뇨병학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사장제, 학회의

# 새로운 시대를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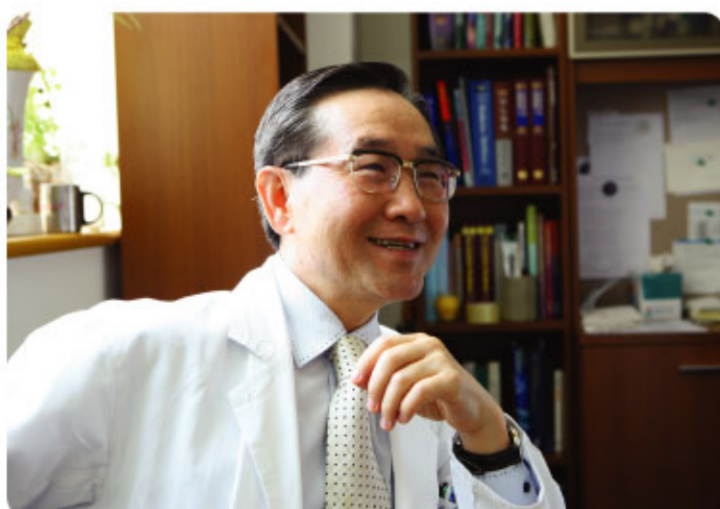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3시 당뇨병학회 회의실에서 '이사장제 시기의 대한당뇨병학회'를 주제로 한 40주년 기념 방담회가 열려, 이사장제의 제기 배경부터 준비과정, 이사장제가 도입된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담회에는 신순현 제15~16대 회장, 강성구 제1대 이사장, 김광원 제2대 이사장, 이현철 제3대 이사장, 손호영 제4대 이사장이 참가했으며 진행은 유형준 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이 맡았다.



"우리나라만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학회에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신순현 15~16대 회장



"이사장제는 Co-Medical Part가 함께 당뇨병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효율적인 체제이지요" - 강성구 1대 이사장



"당뇨병발전기획위원회 같은 전략적인 조직체 건설이 필요합니다" - 김광원 2대 이사장

**유형준** 당뇨병학회의 21세기는 '이사장제'라는 새 체제와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학회 40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서 이사장제 도입 이후 우리 학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사장제 도입에 큰 역할을 하신 신순현 선생님과 1대부터 4대까지의 역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사장제 시기의 당뇨병학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보는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 이사장제의 제기 배경

**신순현** 1990년대 말 회원 수가 늘어나고 각종 학회 사업이 확장되어 회장제만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이사장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어요. 당시 유관학회 사이에서도 이사장제를 많이 도입하는 추세였고, ADA를 비롯해서 외국 학회에는 이미 이사장제가 도입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니다.

이사장제 거론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강성구 교수였어요. 그때가 허갑범 회장 임기 말년 정도였을 겁니다.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손호영 당시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사장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시작했어요.

**강성구** 당뇨병환자뿐 아니라 의사도 늘어났고, 또 Co-medical part, 즉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당뇨병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오면서 그러한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사장제의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호영** 이미 이사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회의 회칙을 모두 수집해서 이사장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기존의 우리 회칙과 다른 학회 회칙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나름대로 이사장제에 걸맞은 회칙을 만들어갔습니다.

**이현철**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회원 규모나 재정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체계적인 기구 변화가 있어야 했던 것이지요.

### 이사장제도의 준비 과정

**손호영** 당시는 다들 이사장제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회칙이 정해질 때마다 신순현 회장께 보고를 드렸고, 평의원회 회의석상에서 브리핑을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유형준** 1999년 2월 24일 정기 평의원회에서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1999년 5월 7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통과를 한 후 대한의사협회에서 1999년 6월 24일 인준을 받았습니다.

**강성구** 대한내과학회를 쫓아서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했습니다.

### 이사장제 이후의 변화와 업적

**강성구** 이사장제가 도입된 이유의 하나는 학회 기구가 자꾸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이사들에게 많은 실무를 이양해주었고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당뇨교육간호사회나 당뇨교육영양사회, 사회복지사회를 창립하도록 한 다음 Co-medical part에서 할 업무를 떼어주었어요.

**김광원** 이사회를 중요한 회의로 확실하게 정착시키자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기구가 커져서 이사장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장은 각 이사들이 반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오연상 홍보이사는 정말 열심히 홍보사업을 펼쳤어요. '당뇨대란'이라는 말도 오연상 이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제1, 2대 이사장 시기는 이사장제도의 기반을 닦고 정착시킨 단계였습니다.

**이현철**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는 연구재단 설립에 가장 중점을 두었어요. 학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로 보험법제이사와 재무이사에게 그 일을 맡겼고 공청회까지 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손호영** 비록 실패는 했지만, 2006년 IDF 대회를 준비하면서 때마침 도입된 이사장제가 대회 유치에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학회가 급속하게 발전했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을 학회 살림의 규모라든가 회원 증가 외에도 국제화에 발을 내딛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결과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회가 상당히 국제화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자위하고 싶어요.

제1, 2대가 이사장제의 정착기라면 제3, 4대는 도약기라고 명칭을 붙이고 싶습니다.

### 이사장제의 개선점

**강성구** 회장과 이사장의 역할을 잘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평의원회를 회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사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학회 시스템을 보면 회장이 학술대회를 주관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학술대회 준비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순현** 학회 회칙은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니, 이사장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회장을 반드시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합니다.

### 학회의 나아갈 방향

**신순현** 역학, 당뇨병의 특징 등에 대해서 한국적인 데이터가 나오도록 학회에서 연구비를 배정해야 합니다. 역학은 모든 연구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한국당뇨협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해요. 구조적인 통합은 어렵더라도 기능적으로 협회와 학회가 당뇨병환자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강성구** 세계화를 위해서는 IDF나 IDF-WPR같은 단체에 관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면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광원** 당뇨병학의 영역을 과연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 당뇨병 의사들이 혈당조절하는 테크니션으로 전락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학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대로 테크니션이 된다면 당뇨병 의사들이 엄청나게 위축될 것입니다. 학회에 당뇨병 학발전기획위원회 같은 전략적인 조직체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현철** 당뇨병은 혈관입니다. 혈관을 공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아내분비학도 포용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국민병이라고 하지만 암 분야와 달리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기구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 이현철 3대 이사장



"이사장제 시기 학회는 국제화의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 손호영 4대 이사장

TFT를 구성해 당뇨병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손호영** 신순현 선생님 말씀처럼 세계화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학회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고 강진경 교수가 했던 고혈압사업처럼 당뇨병사업단을 발족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학회에 없지요.

또 아시아 지역만의 학술단체가 필요합니다. 2007년 Seoul Diabetes Forum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이 포럼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KDA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사를 정례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형준** 긴 시간 동안 당뇨병학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학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당뇨병 없는 세상 만들기 그 끊임없는 도전의 40년 역사



당뇨병 없는 세상 만들기 그 끊임없는 도전

## 40년사 제작일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대한당뇨병학회는 2007년 10월, 40주년 기념사업단을 결성하고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발간 작업을 시작하였다. 1968년 김응진 교수를 비롯한 12명이 창립하였던 대한당뇨병학회는 이제 2300명이 넘는 회원 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학술, 교육,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최고 수준의 학회로 성장하였다. 기념사업단은 『40년사』에 이러한 학회 발전의 역사를 최대한 자세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40년사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많은 학회 회원, 인터뷰와 회고담 청탁에 흔쾌히 응해준 역대 회장 및 이사장단, 각 위원회와 지회의 원고 작성을 직접 한 임원진 등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40년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40년사』는 총 4편으로, 1편 대한당뇨병학회의 역사, 2편 위원회와 지회의 역할, 3편 사업편, 4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신재경, 황보승남 전문집필진이 담당하였고, 2편은 각 위원회와 지회에서 원고를 작성하였다.



## 『40년사』 통사(通史) 집필자 후기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의 통사(通史) 부분을 집필한 필자로서, 10월 초에 가제본된 교정본을 받아보고 '아! 책이 나오는구나' 하는 흥분분함도 잠시, 교정본을 꼼꼼하게 읽어내려 가면서 부족한 점들이 자꾸 눈에 밟혀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역사는 해석하는 자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1968년부터 시작된 학회의 40년 역사는 1970년대를 활로를 모색하는 개척의 시대, 1980년대를 조직 정비에 착수한 도약의 시대, 1990년대를 교육을 통해 내실을 다진 성장의 시대, 2000년대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 세계화의 시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들이 통사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집필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독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지 두렵기만 합니다.

신재경 기자/의계신문사 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2007. 10	40주년 기념사업단 결성
2008. 01. 14	기념사업단 전담 직원 채용
2008. 01. 15	타 학회 기념집 분석작업 시작
2008. 01. 18	40년사 관련 자료수집 공고 (홈페이지)
2008. 01. 21	40년사 가목차 1차 완성
2008. 01. 22	사사(社史) 전문업체 접촉 시작
2008. 02. 12	40년사 편찬 출판사 다니기획 선정
2008. 02. 14	병원별 자료수집 담당자 선정, 공문 발송
2008. 03. 03	다니기획과 계약 제약회사에 자료수집 협조공문 발송
2008. 03. 11	40년사 편찬 조직도 확정
2008. 03. 14	각 위원회, 지회에 원고 청탁
2008. 03. 29	학회 가연표 1차 완성
2008. 03. 31	40년사 자료수집 1차 기간 완료
2008. 04. 01	40년사 가목차 2차 완성
2008. 04. 08	40년사 샘플원고 완성 (유형준 위원장) 40년사 통사 집필업무 분담
2008. 04. 11	역대 회장 및 이사장단 회고담 청탁
2008. 05. 19	통사(通史) 집필자와 계약서 작성 40년사 가목차 검토 회의
2008. 05. 23	유관단체 축사 청탁
2008. 06. 25	해외학회 축사 청탁
2008. 07. 05	40년사 통사 1차 원고 완성
2008. 07. 30	40년사 통사 2차 원고 완성
2008. 08. 04	40년사 디자인 시안 검토 및 확정
2008. 08. 12	40년사 2편, 3편 원고 완성
2008. 09. 02	40년사 통사 3차 원고 완성
2008. 09. 12	40년사 화보 완성
2008. 09. 24	40년사 1차 교정본 나눔
2008. 09. 26	40년사 1차 교정작업 완료
2008. 10. 01	40년사 2차 교정본 검토
2008. 10. 13	40년사 3차 교정본 나눔
2008. 10. 15	40년사 3차 교정작업
2008. 10. 20	40년사 4차 교정작업, 필름출력 및 인쇄
2008. 10. 30	40년사 발간
2008. 10. 31	40년사 출판기념식

# 40년 역사 정리의 큰 임무,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8년 5월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1차 춘계학술대회 학회부스 앞에서 학회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한 40주년 기념사업단 위원들〉

40년 역사를 정돈하여 펴는 일은 타인의 과거 일상을 대하듯 덤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 선후배 동료들의 당뇨병학에 관한 치열(熾烈)한 초지(初志)와 40년 동력(動力)이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미래로 역동(力動)하고 있어 후기를 쓰는 지금까지도 덤덤할 수 없습니다. 40주년 기념사업에 함께 수고한 모든 분들의 정성도 함께 담겨 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 학회의 무진(無盡)한 발전을 기축(祈祝)합니다.

**유형준/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추진위원장, 한림의대**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대장정이 끝나갑니다. 제가 겪지 않았던 시절의 원로 선생님들의 학회를 위한 열정과 치열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겪었던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40주년 기념사업단 이정은씨, 그리고 학회 사무국 식구들, 40주년 기념사업단 위원 분들께 지면을 빌어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당뇨병 없는 세상을 향하여, 핫팅!!!

**고경수/40주년 기념사업단 간사, 인제의대**

당뇨병학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이 더 흘렀을 때에도 이 신문을 다시 만들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창범/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위원, 한양의대**

40주년 기념신문 마지막 호에 실릴 후기를 청탁 받고 보니 한 해 동안 스쳐간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롭네요. 유형준 위원장님과 고경수 총무이사님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열심히 뛰어 준 모든 위원님들과 특별히 정은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주년 기념사업단의 활동이 작은 밑거름이 되어 향후에 당뇨병학회가 50주년, 100주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경목/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위원, 고려의대**

처음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편찬위원회에 위촉을 받았을 때 『대한당뇨병학회 20년사』 외에 이렇다 할 정리된 사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하지만 덕장(德將)과 지장(智將)의 풍모를 겸비하신 유형준 선생님의 리더십 하에서 따라만 갔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념사업단 정은 씨의 노고가 또한 가장 컸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40년사에 뒤이어 올 눈부신 학회 발전의 역사를 가슴 설레며 기대해 봅니다.

**조영민/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위원, 서울의대**

당뇨병학회의 40년을 정리하는 뜻 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새벽에 열렸던 조찬회의, 교정에 교정을 거듭한 『40년사』 작업, 40주년 기념 symposium 준비 등 힘들고 고된 일도 많았지만 앞으로 더욱 학회에 애정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유형준 선생님 이하 40주년 기념사업단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최성희/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위원, 서울의대**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게 된다는 말처럼 신세대 회원인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원로교수님들과의 좌담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당뇨병학회여, 영원하라!

**강준구/40주년 기념사업단 실무위원, 한림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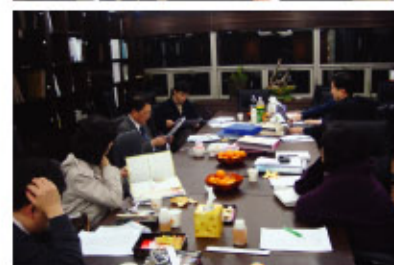
지난 1월 중순,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하던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유형준 선생님 이하 기념사업단 아홉 분의 선생님과 학회 사무국 여러분의 도움으로 기념사업단 일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참으로 뿌듯합니다. 『40년사』 발간을 비롯하여 여러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무척이나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국민에게 더 가까이, 세계로 더 멀리 뻗어나가는 대한당뇨병학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정은/40주년 기념사업단 직원**

\*정인경, 고승현 실무위원은 기념사업단 활동 도중 해외연수 일정을 떠나게 되어 이 지면을 통해 활동후기를 남기지는 못하였다. 열심히 활동해준 두 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2008년 2월 12일 거행된 40주년 기념사업단 현판식.



◀ 40주년 기념사업단 회의 장면. 기념사업단은 2008년 한해 동안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제작, 기념신문 발간, 기념우표를 통한 기부금 모금 사업, 40주년 기념 슬로건과 엠블럼 제작, 원로회원 인터뷰, 좌담회와 방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풍요로운 결실의 가을,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을 여러분과 함께 축하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창립한 이래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당뇨병학 연구와 실천에 소중한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대한당뇨병학회는 2008년 10월 31일(금) 오후 6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출판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난 40년 역사를 밑거름으로 더 큰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3시 30분 부터는 "당뇨병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주제로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40년을 되돌아보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갑범 교수



Harold Lebovitz 교수



Yutaka Seino 교수

## 1.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대한당뇨병학회 40년사』 출판기념식

- 일 시 : 2008년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장 소 : 그랜드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 2.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당뇨병 연구에서 선구자적 역할"

- 일 시 : 2008년 10월 31일(금) 오후 3시 30분
- 장 소 :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홀 4층 A룸
- 강 연 : 허갑범 교수 (허내과의원)

Harold Lebovitz 교수 (SUNY, USA)

Yutaka Seino 교수 (Kansai Electric Hospital, Japan)



함께한 40년 건강한 미래로  
대한당뇨병학회 창립 40주년

## 기념우표 기부금 명단 총정리

"대한당뇨병학회 40주년 기념우표-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기금 조성" 기부금 모금에 동참하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내 주신 기부금은 당뇨병환자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총 217명, 12,500,000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 40주년 기념우표 기부금 모금 참여 명단(최종)

총 217명 / 12,500,000원

### 명 단(가나다순)

김경구(낙천병원)	김선두(희망내과)	김홍범(드림내과)	손현식(의정부성모병원)	이상중(강남차병원)	조동혁(전남대병원)
강문호(강문호내과)	김성훈(제일병원)	나민이(부산의료원)	손호상(대구가톨릭대)	이상준(푸른미래내과)	조성원(조성원내과)
강양교(성가병원)	김순구(대구보건대)	남광우(남광우내과)	송광선(송광선내과)	이성미	조정구(원광대병원)
강양호(부산대병원)	김신곤(안암병원)	남홍우(국립의료원)	송기호(성모병원)	이숙경	조진형(평화의원)
강재원(강내과)	김여주(천안병원)	노은숙(경찰병원)	송민경(평촌연세내과)	이영수(세종내과)	조현대(화명한솔병원)
강재환(강내과)	김영건(충남대병원)	노정현(일산백병원)	송민주(전북대병원)	이우재(상계백병원)	진혜경(단국대병원)
김준구(한림대성심병원)	김영선(김&윤내과)	당뇨병교육영양사회	송준현(연세내과)	이은숙(상주성모병원)	진홍용(전북대병원)
고경수(상계백병원)	김영일(울산대병원)	류동열(이대목동병원)	신동분(부산대병원)	이은정(강북삼성병원)	차해정(성가병원)
고관표(제주대병원)	김영준(연세내과)	문민경(보라매병원)	신순현(중앙대응산병원)	이은정(전남대병원)	채수인(우리들내과)
고은희(서울아산병원)	김용균(김용균내과)	박근석(박근석내과)	신옥식(소망의원)	이재민(건강관리협회 제주)	최경덕(고려대구로병원)
고종학(서울의원)	김용기(부산대병원)	박미정(아주대병원)	신용민(신내과)	이정림(서울아산병원)	최경애(한강성심병원)
곽진호(속 시원관악내과)	김용주(김용주내과)	박상호(양산연합의원)	신현수	이정호(강북삼성병원)	최광용(최광용내과)
국근표(국내과)	김용태(김용태내과)	박석오(광명성애병원)	심강희(삼성의료원)	이주선(울산대병원)	최금희(부산성모병원)
권계형(권내과)	김윤경	박석영(분당차병원)	인규정(경희동서신의학병원)	이지현	최동석(신라병원)
권석윤(사노피아벤티스)	김운숙(경상대병원)	박선영(서울위생병원)	안동석(안내과)	이창범(한양대구리병원)	최동성(고려대병원)
권수경(동래백병원)	김운희(서울대노인병원)	박성배(동산병원)	안유배(성빈센트병원)	이창원(부산성모병원)	최성정(아주대병원)
권희상(강남성모병원)	김은실(경찰병원)	박세영(화순전남대병원)	인지현(중앙대병원)	이태호(양구한림의원)	최신영(최신영내과)
김광원(삼성서울병원)	김인원(세진내과)	박순희(서울위생병원)	여경오(대전성모병원)	이태희(광주의원)	최영길(강남차병원)
김군순(대전성모병원)	김인주(부산대병원)	박영주(분당서울대병원)	염혜선(분당서울대병원)	이형우(영남대의료원)	최영주(허내과)
김기선(김내과)	김정국(경북대병원)	박요한(고신의료원)	유재희(가천대병원)	이희수(평동약국)	최은석(동산내과)
김대중(아주대병원)	김정민(성가톨릭병원)	박이병(길병원)	유철재(유철재내과)	임동미(건양대병원)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김동규(늘푸른내과)	김종덕(원광대병원)	박재홍(박재홍내과)	유형준(한강성심병원)	임은주(동래백병원)	태명산(태명산내과)
김동림(건국대병원)	김종웅(김종웅내과)	박철영(강북삼성병원)	윤건호(강남성모병원)	임현숙(인하대병원)	하근수(침사랑복지의원)
김동민(성바오로병원)	김종화(세종병원)	박현강(원주기독병원)	윤광선(윤내과)	장순섭(우리의원)	하헌주(이화여대)
김동선(한양대병원)	김지민(수영한사병원)	방명희(중문의원)	윤상호(제일내과)	장이선(대전성모병원)	한덕중(서울아산병원)
김동윤(전주예수병원)	김진관(유엔김내과)	배성진(코끼리내과)	윤영길(윤영길내과)	장학철(분당서울대병원)	한미음내과
김동찬(중앙내과)	김진수(김진수내과)	백영직(백내과)	윤종길(윤종길내과)	전숙(경희의료원)	한수옥(중앙대병원)
김동희(김동희내과)	김진영(강릉병원)	백종렬(백내과)	윤지성(영남대병원)	정동진(전남대병원)	한재호(한재호내과)
김동희(상계백병원)	김철우(김철우내과)	변상희(부산백병원)	윤호상(윤내과)	정민영(전남대병원)	한재호(성모자애병원)
김명준(가톨릭대)	김철희	변정란(천안의료원)	이강인(예수병원)	정문규(광양제철부속병원)	허갑범(허내과)
김미경	김현진(울지대병원)	서교일(순천향대병원)	이광우(여의도성모병원)	정우진(정우진내과)	현주숙(충남대병원)
김미정(푸른미래내과)	김현진(울지대병원)	서지영(곽병원)	이규춘(서울내과)	정준용(정준용내과)	형근영(형근영내과)
김민선(서울아산병원)	김형진(명지병원)	손석민(부산대병원)	이명식(삼성서울병원)	정진영(오산고려내과)	혜성병원
김병성(시지미래내과)	김혜선(경찰병원)	손승현(수영한서병원)	이문규(삼성서울병원)	정진목(전남대병원)	홍성관(서울연도내과)
김상욱(강원대병원)	김혜수(대전성모병원)	손승환(손승환내과)	이병두(상계백병원)	정철권(산본연세내과)	홍성애(한강성심병원)
	김혜진(강남차병원)	손태서(의정부성모병원)	이병원(한강성심병원)	정춘희(원주기독병원)	홍원표(홍원표내과)
				정태식(경상대병원)	황준화(황준화내과)